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특성

정지년·유영선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Character of Religious Motive in Modern Fashion Design of 1990's

Ji-nyun Jung · Young-sun Yo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Doctorial Course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1. 4. 30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igious motive and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fashion and to predict the trends in the future fashion by analyzing the religious motive in the aspects of inner meanings and methods.

1. We can see ego-superiority as inner meanings of religious motive is expressed mysterious image. Mysterious feeling is reflected in modern fashion in the form of the transparency of light and mysterious color in religious painting that is reemerged as a gorgeous and luxurious sense or it is reflected in modern fashion in the form of borrowing grand ways of art and elements of clothing. And this results from longing for aristocratic gorgeousness and from desire for light that is based on love and salvation.

2. We can see religious motive in modern fashion is a will to be converted to religion because of fin de sie-cle anxiety, and this is reemerged in modern fashion as borrowing of religious symbols in the casual wear or as combination of sacred religious motive with vulgar image and they are going to get mental satisfaction by this.

3. Religious motive has the inner meanings of ethic completion and this is reemerged through covering bodies, minimizing details and using dark tone color by having an inspiration in religious clothing. And this results from antipathy to extreme gorgeousness of modern fashion and excessive exposure and from mental desire for returning to an inner nature.

Key Words : religion(종교), religious clothing(종교복), mysterious feeling(신비감), mental satisfaction(심리적 만족감), ethic completion(도덕적 완성감)

I. 서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인류는 그 동안의 모든 문화현상들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 서구의 합리주의 전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대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얼굴을 한 문명비판이 철학가를 풍미했다. 기존의 로고스¹⁾ 중심주의의 한 축이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소크라테스의 신화가 니체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거부되면서 일어난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이제 비판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계의 철학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19세기와 20세기의 합리주의 정신에 가려져 있었던 종교와 문화의 영역이 철학적으로 주제화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게 되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극적으로 지양되었고, 그 결과 세계는 문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다른 면으로, 전통적인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종교 영역에서 구체화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²⁾.

세기의 전환점에 놓여있는 현시점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세기말의 불안감이 혼재하고 있다. 과학에 대한 회의, 자연 환경의 황폐화와 그에 따른 지구 종말론의 등장, 인간성의 상실과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 등은 사람들의 관심을 종교와 자연으로 쏠리게 하고 있다³⁾.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비롯하여 이슬람교, 불교 등의 종교적 모티브를 활용한 의상이 컬렉션에 등장하고, 1993년 8월 Vogue지에서는 대중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곧 패션계에도 파급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4년 11월 28일자 News Week 지에서는 물질만능·소비만능 시대에 식상한 사람의 수가 늘고 있고, 이런 추세에 하나가 바로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성스러운 것의 동경임을 커버스토리로 다루었다⁴⁾.

복식사적 측면에서 볼 때, 종교적 모티브는 패션 디자인의 한 요소로써 이미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Gianni Versace를 비롯하여 Jean-Paul Gaultier, Dolce & Gabbana, John Galiano, Alexander

McQueen, Callaghan 등의 디자이너들이 종교적인 모티브를 사용한 일련의 의상들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기의 전환점에서 인간 내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종교의 내적 의미와 종교적 모티브가 패션디자인의 창작과정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종교의 내적 의미와 종교적 모티브 요소들을 고찰하고, 둘째, 190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종교적 모티브가 반영된 복식을 복식사적 측면에서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기법을 분석함으로써 패션에서의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방법과 의미를 밝힌다.

종교적 모티브는 세계 인류가 갖고 있는 여러 유형의 종교 가운데 복식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유래된 것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현대 패션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 분석은 Collections, Collezioni, Fashion News, Fashion Show, Modain, Vogue 등의 패션 전문지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II. 종교의 내적 의미와 종교적 모티브

1. 종교의 내적 의미와 역할

어느 곳,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는 종교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일종의 믿음의 체계와 여러 양식들 및 표상체들이 있어왔고 현재에도 계속 존재한다. 미신, 불경, 성서 등은 종교적 믿음을 나타내며, 굿, 불공, 예배 등은 종교적 의식의 예가 되고, 성당, 사찰, 교회 등은 종교적 표상체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틀어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현상이 인류역사를 통해서 보편적이라는 사실은 종교가 인류와 근본적으로 떼어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입증하고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음을 실증해 준다⁵⁾.

종교는 인간이 자신과 우주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질문에서 출발하였으며 결국, 인간답게 사는 것

이 무엇이나 하는 것과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이나 하는 문제들로 귀착된다. 개인의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 부단히 질문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계속하는 가운데 인간은 참된 가치의 차원을 발견하며 거기에서 종교적 차원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⁶⁾

오늘날의 사회는 계층간의 갈등과 인간성 상실에 의한 인간소외,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이며⁷⁾, 이에 따라 윤리관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후들인 사회적 병리현상(社會的 病理現象)은 부정과 부패, 범죄와 무질서, 일하지 않고 핑계하려는 한탕주의, 사회적 불안에 억압된 마약과 폭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가치관의 정립 없이 사치와 낭비 그리고 과소비 현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병리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 역할을 종교가 할 수 있으며, 종교는 현상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즉 인간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권위(spiritual power and authority)를 가지고 있다⁸⁾. 이것이 인간 생활에서 종교의 힘이자 역할이다.

인간 생활에서 종교의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자기 초월(自己超越)

인간은 자신을 절대자(또는 절대 경지)의 세계로 확장 또는 비약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창조한다.⁹⁾ 또, 실존의 깊이에서 스스로를 회의하고 질문함으로써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피하여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신비(神祕)를 발견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의 카타고리코 우주와 사회와 인생을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와 질서와 생명을 부여한다. 따라서 종교는 자기 초월의 차원에서 인간과 그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며 질서를 준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비의 세계를 인간 이상의 세계에서 발견하게 할뿐만 아니라 그 신비의 세계를 이 세상에 끌어들이고 이 세상을 신성(神聖)의 차원으로 승화(昇華)시킨다.

2) 인간의 욕구 충족

종교는 인간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욕구를 의식하는 것과 함께 발생하였으며 인간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는 근본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인간의 욕구 충족이라는 것은 생리학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 특유의 정신적 욕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¹⁰⁾. 인간의 욕구충족은 육체적, 사회적, 심미적 욕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될 수 있다.

첫째, 육체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원시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종교는 인간 생존의 가장 실체적이며 절실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원시인은 자기들의 가장 절실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현대와 같은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욕구 충족의 방식이 매우 다채롭고 흥미 있게 되어 육체적 욕구의 충족이 이차적인 문제로 되어버린 감이 없지 않으나 이는 종교의 생성과 발달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왔다.

둘째,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불란서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lne Durkheim)은 종교야말로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한 바 있는데, 인간이 자기가 속하여 있는 종족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종교적 토템이며 한 종족의 유지를 위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종교가 필요했다는 것이다(Ernst Durkheim,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6, pp.206-207)¹¹⁾. 육체적 욕구 해소를 위한 종교는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데 반하여, 사회적 욕구의 충족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일 수 있다. 종교는 보다 넓은 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그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기능하기 때문이고, 그 사회적 기능 자체를 위하여 종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심미적(審美的) 욕구의 충족이라는 측면에서도 종교의 역할은 지대하다. 인간은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완전하다는 것은 역시 추상적인 것으로 실현시키기에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완전을 갈구하는 심미적 욕구와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인간이 완전한 것과 과

롭다운 것을 찾는 것은 인간 욕구의 귀중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종교를 통하여 그 회귀를 충족시킨 것이 틀림없다 할 것이다. 인간은 가장 완전한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神의 경지'와 종교적 신앙에서 찾고 거기에서 궁극적 기준을 발견하고 만족하지만, 또한 동시에 변증법적으로 신의 경지와 신비와 영원을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심미적 욕구를 종교적으로 표현한다. 그리하여 종교적 신앙과 인간의 예술은 직결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¹²⁾

어떻든 종교의 역할은 원시인에게나 현대인에게 있어서 자연과 물질 세계에 살면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의 독자성을 찾아가 하는 인간의 근본문제와 씨름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인간의 도덕적 준거

종교는 선한 윤리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있다. 종교는 한사람 한사람이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생각한다. 종교는 윤리생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며 계속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는 그 신앙체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생활에 자신을 맡길 것을 종용한다. 또, 불행에 당하고 억울함과 부조리에 사로잡혀 전진공공할 때도 종교는 궁극적인 희망을 던져 준다. 종교를 통하여 나의 불행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오로지 참된 행복의 획득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으로 참을 수 있다. 정당한 행동과 양심적인 삶이 불행을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종교적 신념은 정의(正義)의 궁극적 승리를 믿게 한다. 따라서 종교는 오늘의 윤리적 부조리를 극복하는 신념과 내일의 삶을 내다보는 비전을 제시하고 오늘의 윤리적 삶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한다.¹³⁾

2. 종교적 모티브

종교는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이념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통하여 조각이

나 건축 등의 예술품 및 복식으로 표현되어 왔다.¹⁴⁾

수세기 동안 예술가, 건축가, 음악가, 시인들은 종교적 주제에 대해 그들의 창조적 노력을 바쳤으며 성직자들은 신도들에게 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예술을 이용했다.¹⁵⁾ 종교는 예술을 종교적 신앙의 표현도구(表現道具)로 삼는다. 즉 그림을 통하여 종교적 신앙이나 숭고함을 드러내며 건축이나 조각 또는 음악을 통하여 내용을 더욱 아름답게 고조 승화시키는데,¹⁶⁾ 종교 예술은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적(美的)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靈的)으로 깊은 감동을 주고 사람들간에 일체감(一體感)과 유대감(紐帶感)을 갖게 한다.¹⁷⁾ 또, 복식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특별히 종교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는 종교가 그 시대의 정신문화를 선도할 뿐 아니라 예배의식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양식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¹⁸⁾

종교적 이념이 표현된 건축, 조각, 회화 등의 예술품과 그 상징물 및 종교복식을 종교적 모티브라 말할 수 있으며, 다음에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종교적 모티브를 살펴보겠다.

1) 불교적 모티브

불교적 모티브에는 먼저, 승원(승방)과 당(불당), 탑 등의 건축물과 조각인 불상, 회화인 불화, 불구, 범종, 법고, 목어, 운판 등의 공예품이 있다. 다음으로 불교의 상징물을 들 수 있는데, 길상을 표시하는 기호인 만(卍), 평등함을 표상하는 원상, 해탈의 법과 불신과 평등의 지혜가 합한 경지를 상징하는 삼보, 법륜, 연꽃, 염주 등이며, 불교 복식 또한 그 모티브가 될 수 있다.¹⁹⁾

불교 복식은 법의(法衣)〈그림1〉로 대표되는데, 법의라 함은 '가법의(加法衣)'의 뜻으로서 '법'은 불법을 뜻하고, '가법의 의'는 불법을 기초로 하는 옷을 말한다. 법의를 범어로는 kassaya(袈裟)라 하는데 불교를 수도(修道)하는 승(僧)의 복장인 삼의(三衣)의 통칭(通稱)이다. 불교에서는 옷에 대한 집착(執着)을 버리는 것을 그 이념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불교성립 당초의 법의는 호사를 위해 옷을 입는 속인(俗人)의 허배, 허식이나 별거벗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외도의 양극을 지양하고 신체보호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서 수행인으로 하여금 중도를 따르게 하려는데 그 근본정신과 본래 의의가 있다²⁰⁾. 처음에는 가사만을 법의라 칭하였으나 전래 과정에서 각 나라의 밑에 겹쳐 입는 내의류를 포함하여 승려의 몸에 걸치는 것은 모두 법의라고 불리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정식 법의인 가사 외에 고안된 법의로서 장삼(長衫), 동방의(東方衣), 승모(僧帽)의 여러 장식품이 있다²¹⁾.

2) 기독교적 모티브

기독교적 모티브로는 건축물과 조각, 회화 등의 예술품 및 상징물 그리고 기독교 복식을 들 수 있다. 미술사(美術史)에서 기독교 미술은 곧 중세(中世)의 미술을 뜻한다. 이는 중세라고 하는 총체적인 상황, 즉 교회와 교권의 영향력 아래서 건축을 비롯한 회화, 조각 등이 기독교 교회의 미술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중세의 미술은 기독교 미술을 대표하는 하나의 전형(典型)이 되었고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문화 유산은 경이로움과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²²⁾

먼저 기독교 예술품에는 바실리카(Basilica),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건축이 있으며, 교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조각, 프레스코(Fresco)화, 모자이크(Mosaic)화, 아이콘(icon), 미니어처(Miniature),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등의 기독교 회화가 있다.

기독교 상징물에는 십자가(十字架)와 상징문자-X(CHI)와 P(RHO), IHS(예수), 알파(A)와 오메가(Ω) 등-를 비롯하여 양(예수), 비둘기(성령), 펠리칸(그리스도의 희생), 독수리(예수승천), (베드로의 배반과 함께 회개와 뉘우침), 사자(부활), 황소(예수) 등의 동물과 포도나무, 포도송이, 밀이삭(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함을 상징), 백합과 붓꽃(성모마리아), 흰색 장미(예수의 탄생), 붉은 장미(순교자의 피) 등의 식물 모티브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태양, 별, 십장 등이 있다.²³⁾

기독교 복식은 초기 기독교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복식이 가톨릭 전례복(典禮服)의 기원이 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모든 문화 발전이

기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었으며, 복식 또한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며 독자적인 기독교 복식문화를 창조하였다. 이로써 기독교는 서양의 정신적 지주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문화와 복식문화를 지배하고 좌우했음을 알 수 있다.²⁴⁾ 처음 성직자들은 단지 법의(dalmatica)²⁵⁾와 팔리움(Pallium)²⁶⁾을 입었으나 6세기에 사제는 법의(Dalmatica)와 페놀라(Paenula)²⁷⁾를 입었는데 제의(chasuble)〈그림2〉는 페놀라에서 유래한 것이다. 9세기 이후에는 중세 봉건사회 속에서 교황의 세력이 점점 강해져 여러 값비싼 장식품으로 위엄을 나타내었다. 16세기에 레이스의 기교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1700-1850년대에는 전례복이 변화와 장식으로 인하여 쇠퇴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²⁸⁾.

3) 이슬람교적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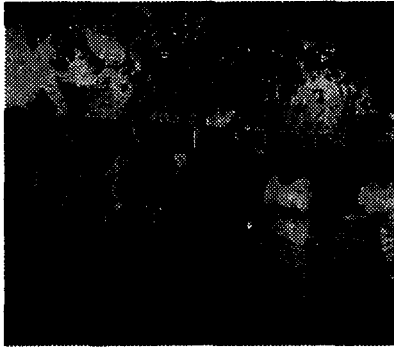
이슬람교 모티브에는 앞서 언급한 종교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조각, 회화 및 상징물, 이슬람교 복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슬람의 예술은 이슬람 문화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 하고 있으나 이슬람의 예술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애니코니(ani-conism)—살아있는 피조물을 형상화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금지하는 것²⁹⁾—이며, 성(聖)과 속(俗) 양면에 걸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 예술과는 성격을 달리한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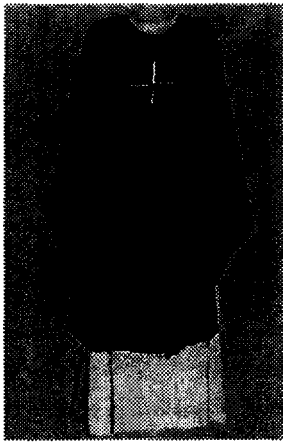
종교의 영향을 가장 뚜렷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건축분야로 모슬렘의 신앙적 요구에 따라 발달한 모스크(Mosque)가 가장 중요하다. 이슬람회화에는 칼리프의 여러 궁전 장식에서 발달한 벽화와, 11-12세기 무렵부터 제지법(製紙法)의 전파에 따라 발달한 손으로 쓴 사본삽화(寫本插畫: 미니아튀르)라고 하는 독특한 형식의 2가지가 있다. 공예품으로는 금속공예, 염직, 유리, 상아세공, 도기 등이 유명하다.

이슬람교 복식과 그 특징은 아라비아 복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이슬람교가 아랍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아라비아는 아시아 대륙 남서부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데 북쪽은 사막지대로 대륙의 사막은 생물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며 남

서부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극도로 건조하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복장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나 옷들을 겹쳐 입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전신을 감싸는 형태의 복식은 열악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였지만, 이슬람교에 흡수되어 현재는 이슬람교도의 전통으로 정착되었다.³¹⁾ 이슬람교에서는 근본적으



<그림 1> 불교복식, 三衣를 입고 탁발하는 승려, 타이 방콕



<그림 2> 기독교복식, 제의(chasuble), "Encyclopedia-Philosophie, Religions", p.252.

로 어느 계급에 속해 있든지 모두가 신 앞에서는 동등한 것이 특색이다. 그러므로 성직자(세속적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종교복식이 기독교나 불교에서와 같이 규정된 것이 아니며, 지역 특유의 민족복식(民族服飾)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²⁾. 이들이 주로 착용하는 옷은 쥬바(Jabbah)³³⁾, 아바(Abba)³⁴⁾,

이마마(Imamah)³⁵⁾, 이흐람(Ihram)³⁶⁾인데, 이러한 인체를 감싸는 유형의 복식은 아랍지역이 아닌 곳의 이슬람교도들에게도 입혀졌으며 이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림 3> 이슬람교 복식, 아바(Abba), "A Folk Custom",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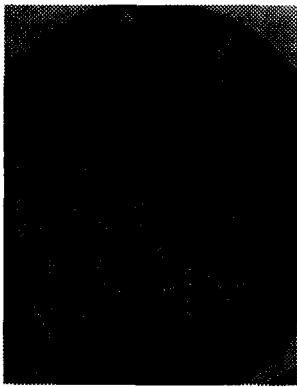
III. 종교적 모티브 패션의 사적 발전(1900~1980년대)

종교적인 모티브가 20세기말에 들어와서야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논의와 더불어 현대 복식에 늘 존재해 왔다. 본 장에서는 1990년대에 하나의 주목받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복식에 표현된 종교적 모티브를 고찰, 정리하였다.

1900년대 전반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Poiret는 이슬람 풍의 복식을 패션에 도입하여 당시에는 전위적인 디자인을 창조하였다. <그림 4>는 Poiret의 이슬람풍의 패션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터번은 이슬람교도들이 존경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Poiret의 패션은 193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대중에게 유행되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을 수 있는 달마티카 케이프, 바지 위에 입는 긴 튜닉, 사리와 같은 스카프 등을 차용해 왔으며, 페르시아의 브로케이드나 순박한 슬라브 민족의 자수 풍, 불교에서의 염주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함으로써 종교적 모티브를 활용하였다³⁷⁾. 이런 현상은 오

리엔탈리즘(Orientalism)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적인 이미지의 패션을 뜻하는 것으로, 비서구적인 동양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1970년대 이후에 에스니즘(Ethnism)이라는 테마로 대두되어 이국취향, 에스닉풍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현대패션에 있어서 종교적 모티브를 반영한 패션의 출현 배경이 되었다.

또 1920년대에 Lanvin은 기독교적 모티브인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을 발표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의 푸른색을 응용한 랑방블루가 가장 유명하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금속성분으로 착색된 반투명의 유리조각을 납으로 용접 결합해서 장식적, 회화적 표현을 한 것으로 그 유리는 광선이 투과될 때 아름다운 색광으로 신비스러운 느낌과 환상적이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이는 기독교의 대표적 회화기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스테인드 글라스의 찬란하고 화려한 색채에 빛을 개입시킴으로써 초월적인 체험을 유도하고 신성과 정신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그림 4> 이슬람 풍의 복식, Poiret's "1002nd Night", 1911 "Fashion-Mirror of History", p.277

1940-1950년대는 전쟁 등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모티브가 반영된 복식을 많이 발견할 수 없다가 1960년대 이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는 하위문화 집단에 의해 시도된 유니섹스 스타일(Unisex Style)로 대표되며 사회적 불안감을 반영하는 히피들의 패션이 등장한 시기이다.

히피들은 서구문명에 대한 반발로 동양의 사상과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불교 및 이슬람교 복식 스타일을 반영하여 그들의 이상을 표출시켰다³⁸⁾. <그림 5>는 1960년대 히피패션으로 이슬람교 복식의 주바를 변형한 형태와 불교의 염주를 착용하였다. 또, 1960년대에 유행한 보니 카신(Bonnie Cashin)³⁹⁾룩이 유행했는데 이는 헐겁고 겹쳐 입는 패션으로 기독교복식의 모태가 된 중세복을 반영했으며, 이 느슨한 풀오버(pullover)의복은 당시 신고전록을 창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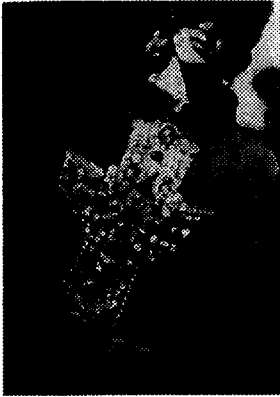
1970년대의 복식은 현실을 넘어서서 과거나 이국적인 정취에 매혹되는 낭만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이때 패션계에 사르와르 팬츠, 하렘 팬츠 등이 등장했으나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80년대 후반 환상적이고 장식적인 분위기의 이슬람 문화권 복식이 패션에 반영되면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1975년부터는 모히칸족 스타일, 안전핀, 면도기, 쇠사슬, 기본나쁜 메이크업 등을 이용한⁴⁰⁾, 공격적이고 도발적이며 좌절된 성격을 특징으로 하는 Punk(펑크)의 움직임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유리세공의 목주나 커텐고리를 걸치고⁴¹⁾ 신성모독의 글귀가 프린트된 셔츠의 착용하는 등의 반종교적인 패션으로 공격적인 면과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의 이탈, 사회로부터의 소외 등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는 상당기간 동안 몸을 은폐시키는 박스 실루엣의 패션이 크게 유행했는데 이는 이전의 바디어필에 대한 반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교적인 금욕적 색채를 띠고 있다. Christian Lacroix, Martine Sitbon 등의 디자이너들도 기독교나 이슬람교 등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스타일들을 발표했다. <그림 6>은 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온몸을 감싼 어두운 분위기의 박스형 실루엣에 화려한 비즈장식의 십자가형태가 가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적인 모티브가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패션에 나타난 모티브는 초기 종교복식이나 액세서리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현대에 가까울수록 반종교의 개념이나 금욕 등 정신적인 측면, 즉, 종교의 내적 의미의 반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 1960년대 히피패션 "세계패션사2, p.252



<그림 6> Christian Lacroix "L'année de la mode 88-89"(1988), p.270.

즉, 현대복과 종교적 모티브는 크로스 드레싱, 종교상징물의 패러디라는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은 이성의 옷을 입는 행위를 언급한 말로써 20세기에 이르러 억압된 성적 표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제이론과 문화적 다원주의, 절충주의, 그리고 자아 정체성을 재 규정하는 하위문화 등의 영향으로 서양 사상 속에 엄격히 구별되어 온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경계가 와해되고 복식에서도 성적 불일치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 복식에서 종교 복식의 모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시대적 맥락에서 전통과 현대의 절충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성적 모호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 중세수도사의 복식을 여성이 착용한 것은 크로스드레싱에 의한 성적 모호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⁴²⁾. 197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창작 방법 중의 하나로 등장한 패러디는 미술뿐만 아니라 사진, 건축, 영화, 연극,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예술양식의 한 장르로서 복식에서도 이러한 패러디 기법은 많이 언급되어 왔다. 종교복식은 살아있는 아이콘(Icon)으로서 성직자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며 그 종교적 의미를 강화해주는 성스러운 복식인데 이를 현대패션에 적용하는 것은 성스러움의 상징인 종교복을 세속적인 주

<표 1> 19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종교적 모티브 패션

시기	내용	종교적 모티브 패션	패션 테마
1900-1910년대		Poiret의 이슬람 풍 패션	오리엔탈리즘
1920년대		Lanvin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영감을 얻은 랑방블루	패러디
1930년대		Poiret의 달마티카 케이프, 긴튜닉, 불교의 염주 등을 이용한 패션	오리엔탈리즘
1940-1950년대			
1960년대		히피들의 이슬람교복식의 형태와 염주 착용, 중세복을 반영한 보니카신 록	히피패션, 유니섹스 스타일, 크로스드레싱
1970년대		중세풍 복식인 페전트 블라우스와 커다란 폴란넬셔츠 패션, Missoni의 중세풍 패션(두건을 쓰고 험령하게 몸을 감추는 의복), 핑크의 반종교적인 패션	패러디, 크로스 드레싱, 핑크패션
1980년대		Christan Lacroix, Martine Sitbon의 몸을 은폐시키는 박스형 실루엣, Moschino의 수단(soutane)을 모방하여 진(jean)으로 표현한 복식	크로스 드레싱, 패러디

제에 적용시킨 패러디로 볼 수 있다⁴³⁾.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서의 종교적 모티브는 에스니즘, 크로스드레싱, 패러디의 개념과 맞물려 1990년대의 패션 트렌드로 부상하였다.

190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종교적 모티브 패션을 정리하면 위의 <표 1>과 같다.

IV.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

1. 종교적 모티브의 외적 표현방법

1) 종교복식의 패러디

종교복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은 모두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을 특징으로 하며 전체적인 실루엣은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며, 특히 이슬람교의 복식은 눈조차도 모기장형태로 가려지기도 한다. 디테일과 장식은 최소화되고 색상도 무채색을 비롯한 짙은 톤을 사용한다. <그림 7>은 Saverio Palatella의 1995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불교의 가사(袈裟)에서 모티브를 얻어 종교적 암시성을 표현함으로써 도덕적 완성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종교복식은 인체에 꼭 맞게 재단되거나 진 등의 저속한 이미지로 재현되



<그림 7> Modain N.92,('95 A/W), p.85.

기도 하고, 화려한 색상과 재질로 패러디되어 신비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도 한다.

2) 종교적 상징물의 차용

종교에는 각각의 상징물이 있으며, 이를 일상복에서 차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도 한다. 이 상복은 1998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불교의 상징물인 연꽃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을 발표했는데 <그림 8>, 연꽃은 불교에서의 대자대비를 상징하며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연꽃의 뿌리는 진흙에 감겨 있어 해결불능을 상징하며 줄기는 고인 물을 가로지르므로 텃줄을, 꽃은 태양에 의해 피는 것으로 성숙과 빛에 의한 실현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 연꽃의 이미지를 의복에 형상화시켜 탄생과 성숙을 상징화하는 것이다. Givenchy 또한 1998년 봄·여름 컬렉션에서 이슬람의 상징 문양인 추상화된 아라베스크 문양을 현대 의복에 형상화하였는데, 아라베스크 문양은 이슬람 미술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으며 공예품 등에 장식적인 모티브로 사용되어 호화로움의 극치를 이룬 것으로 현대 복식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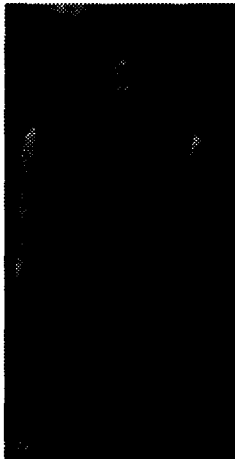


<그림 8> Vogue Korea, N.21(1998.4), p.80.

3) 종교적 모티브의 프린트

종교 건축물의 모티브가 반영된 복식은 강한 종교적인 암시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교화인 벽화, 모자이크화, 스테인드 글라스 등은 종교적

인 신비감을 줌과 동시에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데, 이들은 현대 패션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모티브로 자리하고 있으며, 최근의 컬렉션에서도 기독교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성상화 및 불교의 불화 등이 반영된 작품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 중세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종교적 테마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지만 그 정교한 표현과 신비주의적인 색채는 회화로서의 가치를 뛰어넘는 훌륭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복식에 문양으로서 사실성 있게 옮겨놓는 것만으로도 그 오묘한 색상에 의해 신비스런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하다.



<그림 9> Collezioni N.19('91 S/S), p.279



<그림 10> Collections I ('97 S/S), p.270.

Comme Des Garçons는 1991년 컬렉션에서 스테인드글라스의 모티브를 반영한 작품 <그림 9>을 발표하여 종교적인 신비감을 표출한 바 있으며, <그림 10>은 Moschino의 작품으로 불상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를 의복에 그대로 프린트하여 조각을 연속 배치하여 팝아트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4) 종교적 모티브의 훼손

현대 패션에서는 종교적 차원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 자신의 존재를 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둬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1960-70년대의 히피나 핑크 패션 등을 발단으로 현재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의 경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써, 종교의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림 11>는 1997-98년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발표된 Alexander McQueen의 작품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성상화를 재킷에 패러디하고, 불규칙한 햄라인의 가죽스커트와 대조시키고 있는데, 이는 종교화의 성스러운 차원을 끌어내려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2>은 Yoshiki Hishinuma의 작품으로 기독교의 상징물인 십자가를 저속한 이미지와 결합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림 11> Collections II ('97-98 A/W), p.331.



<그림 12> Modain N.104 ('98 S/S), p.162.

2. 내적 의미에 따른 표현방법

모든 종교는 그 성격상 내적인 의미 즉, 깊은 종교적 의미와 신비한 영적인 것이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종교적인 모티브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의미와는 다른 교차적 의미를 주어 심리적 만족감과 도덕적 완성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를 종교의 내적인 의미와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1) 자기 초월

인간은 현실에서는 가질 수 없는 신비감을 종교라는 안식처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신비감은 비천할 수밖에 없는 현실세계를 보다 높이 평가하고 고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는 예술에 모든 종교적 개념들의 풍성함을 열어주었고, 예술로 하여금 영혼의 가장 깊은 체제와 열망들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었다.

기독교에서는 화려한 중세시대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은 이국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취향을 반영하는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는데, 중세의 아이콘화, 모자이크화, 스테인드 글라스 등에서 보여지는 화려하고 신비주의적인 색채가 나타나기도 한다. 기독교 복식의 모태가 된 중세 복식에서의 신비성은 화려

한 실크 직물과 여기에 금, 은사로 수를 놓기도 하고 준보석을 넣고 짜기도 한 호화로운 직물로 표현되었는데, 현대의 여러 디자이너들은 이런 화려함을 재현하였다. 1998년 Gianni Versace는 기독교 성상화를 패러디한 광고 비주얼로 주목받은 바 있는데, 종교적인 색채와 직물로 기독교의 신비감을 엿볼 수 있다.

현대 패션에서는 자기초월의 이미지를 신비로운 종교적 상징물이나 색채로써 재현하고자 하며, 그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화려하고 장중했던 예술 양식과 복식 양식의 요소들을 차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3>는 Christian Dior에서 발표된 작품으로 기독교 복식을 신비로운 색채와 화려한 직물로 재현하여 신비감을 주고 있다.



<그림 13> Mode et Mode No.312(2000 A/W), p.71

2) 인간의 욕구충족

종교의 내적 의미에서 인간의 욕구충족이라는 세 가지 차원, 즉 육체적 욕구충족, 사회적 욕구충족, 심미적 욕구충족은 현대 패션에서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세기말에 들어서면서 일종의 불안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에 귀의하여 구원을 구하게 만든다. 이것은 문화 전반에 유형 무형으로 표출되고 있는데⁴⁵⁾, 패션에서는 종교의 상징물이 모티브화 된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

상복에서의 십자가 장식물의 유행이다. 이와 같은 십자가 장식물은 사람들의 마음 내면에 존재하는 세기말적 불안감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부적문양이 프린트된 속옷 등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육체적 욕구충족의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심미적 욕구충족의 측면에서 인간은 기계와 물질 문명의 노예화를 거부하고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자연을 초월하고자 종교에 귀의한다. 현대 패션에서는 종교적 차원을 거부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되찾고 자신의 존재를 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들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의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종교의 상징물들을 회화하여 패션에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종교를 장식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심미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한 것이다. Givenchy는 1998년 컬렉션에서 종교적 건축물을 머리장식으로 오브제 화하여 치장의 도구로 사용한 작품<그림 14>을 발표하였다.

즉,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는 세기말적 불안감으로 인한 종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종교적 상징물의 일상복에서의 차용이나 저속한 이미지와의 결합 또는 회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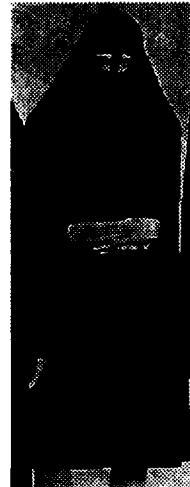
여 표현함으로써 육체적, 심미적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

3) 도덕적 완성감

종교는 인간 윤리생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며 또, 이를 계속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체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그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생활에 자신을 맡길 것을 종용한다. 사람들은 현대패션의 극단적인 화려함과 극에 달한 노출, 또는 혐오감을 주는 스타일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복식보다는 미묘한 감각과 우아함을 표현해줄 수 있는 스타일을 찾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금욕적인 종교 복식으로부터 영감을 구한다. 성직자나 승려 등의 평상복이나 전례복은 하나같이 고전적인 무드를 지니고 있다. 지금 입고 있는 그들의 복장은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디자인을 바꾼 일이 없을 정도로 과거의 복식 그대로이다. 종교 본연의 가치가 불변인 것처럼 그들이 입는 의상의 가치도 불변의 것이다. 종교복식은 육체를 은폐시키고, 디테일이 최소화되며, 무채색을 비롯한 다크(dark) 톤의 색상을 주로 사용한다. 사람들은 이를 반영한 현대패션을 착용함으로써 도덕적 완성감을 얻으려 한다. <그림15>는 1998년의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발표된 Callaghan의 작품으로



<그림 14> Collezioni N.63('98 S/S), p.466



<그림 15> Collections II ('98 S/S), p.316.

<표 2> 1990년대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특성

외적 표현방법	표 현 특 성	내 적 의 미	디 자 이 너
종교복식의 패러디	· 종교복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이 특징 · 디테일과 장식의 최소화, 무채색의 짙은 톤 사용	도덕적 완성감 심리적 만족감	Saverio Palatella, Romeo Gigli, Sybilla, Christian Dior, Callaghan
종교적 상징물의 차용	· 종교적 상징물의 모티브를 일상복에서 차용	자기초월(신비감), 인간의 욕구충족, 심리적 만족감	Givenchy, Gianni Versace, Paco Rabanne, Christian Lacroix
종교적 모티브의 프린트	· 모자이크화, 스테인드글라스 등에서 보여지는 빛의 투명함이나 신비스런 색채를 화려하고 사치스런 감각으로 재현 · 종교건축, 조각물, 회화의 프린트	자기초월(신비감), 인간의 욕구충족	Comme Des Garçons, Moschino, Dolce & Gabbana
종교적 모티브의 패손	· 성스러운 종교화의 모티브를 저속한 이미지와의 차용 · 건축물이나 조각 등 성스러운 종교적 모티브의 회화	인간의 욕구충족, 심리적 만족감	Jean-Paul Gaultier, Alexander McQueen, Givenchy, Yoshiki Hishinuma

이슬람권에서 입혀지는 종교복의 형태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박스 실루엣으로 철저하게 온몸을 은폐시키는 금욕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이 작품은 모두 단지 '보이고자'하는 욕망이 아닌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내면성으로의 복귀를 나타내는 특징을 표출하고 있다⁴⁶⁾.

이처럼 종교복의 모티브는 현대의 물질주의적인 경향에 정면 대항하여,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욕망을 억제시키는 절제의 표상으로써 도덕적인 완성감을 주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 현대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 표현특성에 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 2>로 정리되었다.

V. 결 론

결론적으로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내적 의미와 표현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종교적 모티브의 내적 의미로서의 자기초월은 신비감이라는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신비감은

종교화에서 나타나는 빛의 투명함이나 신비스러운 색채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감각으로 재현되거나 장중한 예술양식과 복식 요소를 차용하는 형태 즉, 스테인드 글라스 등의 종교화나 불탑 등의 건축물 등의 표현기법으로 현대 패션에 반영되는데, 이는 귀족적 화려함의 동경과 사랑과 구원에 기반을 둔 빛에 대한 회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현대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는 세기말적 불안감으로 인한 종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종교적 상징물 즉, 십자가나 연꽃, 이슬람문양 등 종교적 표현기법의 일상복에서의 차용이나 성스러운 종교적 모티브의 저속한 이미지와의 결합 또는 회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육체적, 심미적 만족감을 얻으려 함을 볼 수 있다.

셋째, 종교는 인간 윤리생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며 또, 이를 계속 모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 체계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내 자신을 맡길 것을 종용한다. 따라서 종교적 모티브는 도덕적 완성감이라는 내적의미를 가지며, 이는 기독교의 전

레복, 불교의 법복, 이슬람교 복식 등의 종교복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육체를 은폐시키고, 디테일을 최소화하며, 무채색을 비롯한 다크 톤의 색상을 사용하는 등으로 재현되는데 이는 현대 패션의 극단적 화려함과 극에 달한 노출 또는 혐오감을 주는 스타일에 대한 반감과 '존재'하고자 하는 내면성으로의 복귀에 대한 심리적 욕구에서 근거한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에 패션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는 자기 초월, 인간의 욕구충족, 도덕적 완성감이라는 내적의미를 가지며, 이는 종교 복식의 패러디, 종교적 상징물의 차용, 종교적 모티브의 프린트, 종교적 모티브의 훼손 등의 외적 표현방법으로 복식에 반영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교는 세속의 영역에서도 심리적 안정감과 신비감 등을 주는 의상에 부합되어 인간생활과 정신에 영향을 주는 복식이 될 수 있으며, 종교 복식에서 보여지는 간결한 실루엣은 화려함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계속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새로운 디자인 창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종교 건축과 공예품 등의 조형적 특성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복식미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패션디자이너의 새로운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에 관련한 본 논문에서는 종교의 대상범위가 넓어 세부적이고 객관화된 자료를 제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낸다.

이 부분은 후속연구에서 각 종교별 특징과 패션과의 관련성을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컬렉션이 아닌 일상복에 나타난 종교적 모티브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로고스(logos) : 만물을 조화, 통일하는 이성(理性). 기독교에서, 삼위일체의 제2위인 성자(聖子)를 일컫는 말.
- 2) 김진, "종교 문화의 이해", UUP, 1998
- 3) 김태연, "중세풍 복식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 금욕성, 자연성, 신비성, 세속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p.2.
- 4) 이정호, "포스트모던 문화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p.314.

- 5) 박이문, "종교란 무엇인가-종교철학", 1993, 일조각, 서문.
- 6) 최재선의 5인 공저, "현대사회와 종교", 바울서신사, 1991, p.18-19.
- 7) 강영계, "종교와 인간의 삶", 철학과 현실사, 1999, p.137.
- 8) 최재선의 5인 공저, "현대사회와 종교", 바울서신사, 1991, p.18-19.
- 9) 강영계, op.cit., p.33
- 10) 서광선, "종교와 인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7, p.24-33.
- 11) Ibid., p.38-39.
- 12) Ibid., p.48-50.
- 13) Ibid., p.53-64.
- 14) 유송옥·이은영·황선진 공저, "복식 문화", 교문사, 1997, p.154.
- 15) 세르게이 토카레프 저/한국종교연구회 역, "세계의 종교", 사상사, p.403
- 16) 이경우, "기독교 미술에 관한 소고", 목원대 석사학위논문, 1983, p.5
- 17) 이주선, "기독교 정신을 근거로 한 한국 현대 공예 연구-종교적 상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6, p.92-93.
- 18) 김정길, "초기 기독교 복식과 비잔틴 복식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1997, p.1.
- 19) 홍윤식, "한국의 불교미술", 대원정사, 1994, p.42.
- 20) 임영자, "한국 종교 복식-불교와 도교 복식을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1990, p.15.
- 21) 권영실·조우현, "인도 종교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21, No.4(1997), p.681.
- 22) 신현기, "한국 기독교 미술의 연구-회화를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1995, p.4
- 23) 이성은, "가톨릭 전례복의 문양, 색채를 도입한 현대 복식 디자인 연구-제의와 감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5, p.29-41.
- 24) 전광희, "기독교복식에 표현된 상징성에 관한 연구 - 초기 기독교시대와 비잔틴시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p.1.
- 25) 달마타카의 모양은 직사각형을 반으로 접어 양쪽 팔뚝을 잘라내고 목부분을 -자, T자, U자 또는 원형으로 파서 만든 것으로, 이 옷을 펴 보면 십자가의 형태를 이루어 종교적 감각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옷의 형태는 헐렁하게 재단되어 소매 폭이 넓고 길이는 무릎 또는 발목까지 오며, 어깨부터 아랫단까지와 소매 끝동에 클라비스(clavis)를 보라색이나 붉은색으로 장식한 것이다.
- 26) 직사각형의 옷감을 몸에 휘둘러 입는 랩 스타일로, 리넨이나 울을 주로 사용했다. 그리스의 허마티온

- (Himation)이 계승된 것으로, 남자용을 팔리움(Pallium), 여성용을 팔라(Palla)라고 했다.
- 27) 판초형식의 길이가 긴 케이프를 페놀라라고 하는데, 앞중심은 열린 채로 내려 왔고, 보통 높이 솟은 후드가 달려있으며, 반원형천을 어깨에 두르고 앞에서 편이나 후크(hook)로 여미었다.
- 28) Ibid., p.5-10.
- 29) 김병범, "이슬람의 문화와 교리이해를 통한 선교전략 연구", 총신대 석사학위논문, 1993, p.50-51.
- 30) "세계대백과사전", p.12583.
- 31) 권영실·조우현, op.cit., p.683.
- 32) 이주호, op.cit., p.24.
- 33) 쥬바(Jabbah)는 폭넓은 가운(gown)을 말하며 길이는 발까지 닿고 길이의 반 정도를 단추로 여미며 총 길이는 카프탄보다 긴 옷이다.
- 34) 아바(Abba)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동쪽지역의 수니(Sunnies)파 사람들의 의복으로, 쥬바를 함께 입으며 아바에 속하는 의복형으로는 하이크(haik), 차도르(chadori)나 브루카(burqua) 등이 있고, 주로 사용되는 색은 낙타색, 흑색 등이다.
- 35) 이마마(Imamah)란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감싸는 스카프(scarf)나 터번(turban)을 말한다.
- 36) 이흐람(Ihram)은 성지 순례 때 입는 백색의 재봉선이 없는 두벌의 옷으로 순례가 끝날 때까지 갈아입지 않는다.
- 37) "세계의 패션 디자이너", 라사라, 1992, p.58.
- 38) Yvonne Connikie, "Fashion of A Decade-The 1960's", B.T.Batsford·London, 1994, p.
- 39) 보니 카신(Bonnie Cashion, 1915~) : 미국 출신의 디자이너로 '겹쳐 입기'의 개념을 개척했는데 이는 기후나 상황에 따라 입거나 벗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각들로 전체가 구성된 스타일이다. 즉 별개의 옷이면서도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1950년대 나만 마커스상과 위니상, 1961년대 코디특별상, 1971년에는 코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 40) 백영자·유효순, "서양의 복식문화", 경춘사, 1998, p.349.
- 41) 라사라교육개발원, "20세기 유행의 변천사", 라사라 패션정보, 2000, p.105.
- 42) 이정후·양숙희,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35호(1997.11), p.112
- 43) 고현진·김민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Parody)에 관한 연구", 복식25호(1995.8), pp.249-250.
- 44) 홍귀순, "양리 마티스 작품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p.25.
- 45) 김태연, op.cit., p.61.
- 46) Ibid., p.56.